월요논단

18세의 신인 정치인을 환영하면서

양 영 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올해부터 만 18세이면 정치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이를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다. 이유는 세상사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이야 말로 이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다. 학력과 연령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1970년대 대학 졸업한 사람과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의 수준이 같으며, 그 당시의 박사는 현재의 중학교 3학년 수준의 학력이라고 한다. 만 18세이면 어느 기성세대 못지않게 세상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인정해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 대부분은 18세 국민에게 투표권만 아니라 심지어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출발지인 그리스는 만 16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지 오래다.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에서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결코 획기적이거나 진보적 정책은 아니다. 위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이들을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첫째는 기성세대의 혼탁한 정치와 사회에 청량제 역할의 기대 때문이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한국에만 만 있는 용어일 정도로 정치가 엉망이다. 지방정치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수없이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더욱 구제불능으로 가고 있다. 만 18세 55만, 19세 67만 유권자들의 눈에는 정치하면 싸움의 터로만 평가한다. 이 평가가 20대의 670만 유권자와 결합하여 한국의 무질서하고 비생산적인 정치판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미래를 책임질 이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다.

청년을 미래요, 중년은 현재이며 노년은 과거다. 사회속도가 쉼 없이 변화하고 있다. 내일이 곧 미래라 할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르다. 10~20년 후 사회는 디지털사회, AI 사회 등으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가상세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적 세대가 현재의 중년이나 노년층이 아니고 현재의 18세 나이 또래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곧 닥쳐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세대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사회인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셋째는 비례성 원칙이다.

비례성이란 대표성이라고도 말한다. 인구 만큼 그들의 의견이 사회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1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인 약 500만 명 정도다. 비례성은 모든 정책과 예산의 10%가 이들을 위하여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 않다. 마을마다 건립되어 있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등은 마을마다 심지어 동네마다 있지만 청소년 회관은 읍면단위는 고사하고 시단위에도 하나 없다. 부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오락실이 유일한 그들만의 회관인 것이다.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있는 세대다.

18, 19세 유권자 130만 명은 우리나라 선거 양상으로 보면 대통령 당락까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합리적인 매의 눈에 의한 선거에 의해 정치가 정화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선되는 사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두 손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다.

사설

녹록잖은 제주경제, 지표들이 말해준다

새해 들어서도 제주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경제지표들이 하나같이 어두운 내용들뿐입니다. 제주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올해 1분기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한달간 도내 1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1분기 기업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100P 기준)는 88P를 찍었습니다. 2014년 1분기 85P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 1분기 112P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월 제주지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전국 HOSI 전망치는 76.8를 기록했으나 제주는 61.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근로자들에게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88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도(152억원)에 비해 35억원(22.85%) 가량 늘었습니다. 체불임금은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43.85%)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설업(18.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15%) 등에 집중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제주경제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최대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큰 일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ASF 대비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 수립을

일명 돼지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전염병입니다. 구제역과 달리 예방백신도 없는 무서운 가축 질병입니다. 내외부 출혈을 일으키면서 급사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9월 중순 첫 발생 이후 관련 당국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계속 발병하고 있어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81건 확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주는 ASF가 유입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ASF는 원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나 배 등을 이용한 사람의 이동을 통해 대륙 간 이동을 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된 돼지 혹은 돼지 생산물의 이동 등이 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ASF가 한번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그로인한 농가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백신도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이 최선입니다. 제주도가 ASF 확산에 대비해서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평가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양돈단지 분산화 등 제안된 일부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기된 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을 감안한 좀 더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과 물류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선 한시도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

열린마당

연납신청하고 절세하며 새해를 시작하세요

고 민 수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경자년의 새해가 밝았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한번쯤은 세워봤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내는 세금에서부터 간단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한데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신청이 돼 있으며 1월에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의 경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체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납이 취소돼 기존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된다.

덧붙여서 알려드리면 연납을 신청하고 나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기간 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도나 폐차 계획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

많은 시민들께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란다.

2020년 경자년을 부지런하다는 쥐들처럼 알뜰하게 시작해 복 많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들께 희망 줄 수 있도록 분발을"

원 지사, 정기인사 원칙 설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의 원칙을 직접 설명하며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원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임용장 수여식에서 "인사의 큰 원칙을 민생경제 활성화, 도정현안 해소, 미래를 위한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급적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

원 지사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를 차질 없이 하고, 앞으로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요청. 조상윤기자

"일방적 전략공천 안돼"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강창일 국회의원의 '불출마'로 중앙당이 제주시갑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지에 포함시켜 당내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 의원이 전략공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강 의원은 지난 17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우려.

이어 "제주는 서울과 다르다"면서 "만일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움직였던 후보와 대화를 해야한다"는 등 일방적인 결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오은지기자

창직마루 입주팀 공개 모집

○…제주시가 이달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창업카페 창직마루 입주팀을 공개 모집.

입주팀으로 선정되면 입주 계약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직마루의 시설·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 받는 혜택을 향유.

제주시 관계자는 "지원자격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가이며, 이메일(jcmaru16@naver.com) 및 창직마루 방문접수로 가능하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부 고

고도현(붇다클럽 백록회장 · 前 국민연금공단 부장) 어머니 **김해김씨 신생(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18일 10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1월 19일(일요일)
▶발인일시 : 2020년 1월 20일(월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 남원읍 한남리 선영

아 들 고 도 현
며느리 김 영 애
딸 고 경 자
사 위 현 창 오

※ 연락처 : 고도현 010-5826-8823
김영애 010-2698-2364

부 고

이승훈(하경엔지니어링) 어머니 **제주고씨 창선(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18일 18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1월 21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0년 1월 22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 해안동 선영

아 들 이 승 훈 며느리 김 현 랑
충 훈 김 선 주
창 훈 정 은 주
경 훈 고 정 희
딸 이 애 숙 사 위 장 영 성
정 숙 이 유 배
경 숙 김 동 석
손 이혁준 외손 장재혁 외 손 김영선
이 건 이안례 외손서 정승원
손녀 이영빈 경민 이민건
효진 금경 외손부 류영아
외손 장재영 김승관

※ 연락처 :
이승훈 010-2073-2467 이애숙 010-9147-6579
이충훈 010-9148-7767 이정숙 010-4699-1687
이창훈 010-6690-1826 이경숙 010-7321-4324
이경훈 010-8502-182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거창신씨 희범(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20일

남 편 부원휴
아 들 부경남 며느리 강경화
정윤숙
유남 백경림
딸 부경희 사 위 김창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봉환(요셉·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20일

부 인 김해월(요안나)
아 들 이영룡 며느리 강해숙
범룡 김윤정
딸 이순옥 사 위 오동석
순신 오수철
순성
순량 유일환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사는 2019년 12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아림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5-1
청산인 이 희 구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1. 당 회사는 2020년 1월 3일 주주전원 결의로 자본의 총액을 40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50,000,000원으로 한다.
2. 발행주식의 총수는 40,000주에서 35,000주를 감소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로 한다.
3. 자본 감소 방법은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며, 감소할 주식 35,000주는 2019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식수 비례로 유상 소각한다.
4.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구주권을 가진 주주들은 당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구주권 및 이의 제출기간 :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2020년 1월 20일

제주이즘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3, 2층 (노형동)
사내이사 한 경 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